

01 초등 학부 모용

초등 선행, 어디까지가 이득인가

옆집 아이가 벌써 중등 수학을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왜 갈리는가	3
03 그래서 무엇을	4
04 학년별로 · 점검표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고입에서 내신을 **언제부터 세는지** — 갈래별로 정리한 표 (과학고·외고·영재학교)
- ◆ 같은 초5 두 아이가 중3에서 갈리는 자리 — **진도를 뺀 아이와 느리게 본 아이**
- ◆ 초등에서 쌓아 둘 것 셋, 그리고 흔히 어긋나는 자리 셋
- ◆ **초4·초5·초6이 할 일이 다릅니다** — 학년별 표와 인쇄용 점검표 여덟 가지

01 · 먼저 사실부터

입시가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

「옆집 아이는 벌써 중등 수학을 끝냈대요.」

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.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. 그런데 급해지기 전에 **제도가 언제부터 성적을 세는지부터** 보셔야 합니다.

고입에서 내신이 **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**은 이렇습니다. 학교마다 다르지만 가장 이른 자리가 어디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.

어디에	언제부터 세는가
과학고	학교에 따라 중1 1학기 부터 (예: 인천과학고)
외고·국제고	영어 내신 중2 부터 (경기 기준)
영재학교	중1부터 지원 가능. 합격자 대부분은 중3

가장 이른 자리가 **중1 1학기**입니다. 초등 성적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하지만 **고입 전형에서 점수로 세지 않습니다.**

그러니 초등에서 「입시 준비」를 한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. 다만 이 말이 「**초등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**」는 뜻은 아닙니다. 세지 않는 것 중에 3년 뒤를 가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.

출처: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. 반영 시점은 학교·지역마다 다릅니다.

02 · 왜 갈리는가

훔친 것과 아는 것의 차이

같은 초5 두 아이를 놓고 보겠습니다.

	A	B
초5~6	중2 과정까지 진도를 뺏니다	초등 과정을 느리게 봅니다. 틀린 것을 다시 풁니다
중1	배운 것이라 수업이 지루합니다	처음 보는 것이라 집중합니다
중1 내신	안다고 생각해 실수합니다	또박또박 맞습니다
중2~3	진도는 앞선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	진도는 뒤인데 안 흔들립니다

A가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. 갈림길은 「배웠다」와 「할 수 있다」를 같은 것으로 여긴 자리였습니다.

세 가지가 겹칩니다

처음 배우는 순간은 한 번뿐입니다. 낯선 것을 만났을 때 뇌가 가장 세게 붙습니다. 그 한 번을 훔기로 써 버리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때 그 세기가 안 나옵니다. 진도를 앞서 나간 아이가 수업에 탄탄하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미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은 묻는 것이 다릅니다. 초등은 「계산할 수 있는가」를, 중등부터는 「왜 그렇게 되는가」를 묻습니다. 초등 방식으로 중등 진도를 나가면 답은 맞는데 설명을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. 문제가 조금만 비틀리면 무너집니다.

빨리 나간 아이는 되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. 이미 중2를 하는데 초6을 다시 보자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진도가 앞설수록 되돌아가는 비용이 커집니다.

그래서 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. **한 달 뒤에 같은 문제를 다시 풀려 보십시오.** 그때 풀리면 선행이고, 안 풀리면 훑은 것입니다.

03 · 그래서 무엇을

초등에서 쌓아 둘 것 셋

제도가 초등을 안 세니, 초등은 세지 않는 것을 쌓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그 셋은 중등에서 새로 만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.

Q. 첫째 — 읽고 무슨 말인지 아는 힘

중등부터는 문제가 길어집니다. 수학도 국어 문제처럼 생깁니다. 조건이 세 줄이고 묻는 것이 마지막 한 줄인 문제가 흔합니다. **연산이 빨라도 문장을 못 읽으면 거기서 멈춥니다.** 권수를 세지 마시고, 한 권을 두고 **무슨 말인지 이야기하게** 하십시오.

Q. 둘째 — 틀린 것을 다시 보는 버릇

초등에서 이 버릇이 안 들면 중등에서는 더 안 듭니다. 문제 양이 늘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. 점수보다 **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는가**를 물어 주십시오. 「몇 점 맞았어?」와 「어디서 틀렸어?」는 아이에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.

Q. 셋째 — 스스로 앉는 시간

누가 시켜야 앉는 아이는 중3에 무너집니다. 그때는 시킬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. **하루 30분이라도 혼자 앉는 시간**을 만들어 두십시오. 길이보다 매일이 중요하고, 무엇을 하는지보다 **스스로 시작하는지**가 중요합니다.

흔한 어긋남도 셋입니다. **읽기**는 「끝까지」가 목표가 되면 눈으로만 넘깁니다. **오답노트**는 옮겨 적는 것이 일이 되면 다시 안 봅니다 — 아무것도 안 보고 다시 푸는 편이 낫습니다. **혼자 앉는 시간**이 안 생기는 것은 대개 일정이 꽉 차서입니다. 하나를 빼야 생깁니다.

04 · 학년별로 · 점검표

초4·초5·초6은 할 일이 다릅니다

학년	여기에 무게를	이건 아직
초4	읽는 힘 · 노는 시간 · 연산의 정확도	선행. 지금은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
초5	틀린 것 다시 보기 · 스스로 읽는 버릇	두 학년 이상 앞선 진도
초6	중1 과정 한 학기 미리 · 시험 치르는 법	특목고 대비 커리큘럼

초6 겨울이 첫 갈림길입니다. 그때 필요한 것은 진도가 아니라 **시험을 처음 치르는 법**입니다. 초등에는 지필 시험이 거의 없어서 중1 첫 시험에서 아는 것도 틀리는 아이가 많습니다. 시간을 재고, 답안지에 옮겨 적고, 틀린 것을 고치는 과정을 한번 겪게 하십시오.

이번 학기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한 달 전에 배운 것을 **지금 다시 풀 수 있는가**
- ☐ 틀린 문제를 **다시 푸는가** — 답만 확인하고 넘기지 않는가
- ☐ 하루에 **스스로 읽는 시간** 이 있는가
- ☐ 읽은 책에 대해 **자기 말로** 이야기할 수 있는가
- ☐ 「몇 점 맞았어?」 보다 「**어디서 틀렸어?**」 를 더 자주 묻는가
- ☐ 옆집 아이의 진도를 **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**
- ☐ 학원을 **늘리는 것** 으로 불안을 달래고 있지 않은가
- ☐ 아이가 **쉬는 시간** 이 하루에 있는가

여덟 개 중 다섯 이상이면 방향이 맞습니다. 셋 이하라면 진도를 늘리기 전에 이쪽부터 손보시는 편이 낫습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**초등에서 학원을 여러 곳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.** 한 곳에서 제대로 하고 남은 시간에 읽고 놀리는 편이, 세 곳을 돌며 다 훑는 것보다 3년 뒤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초등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

Q. 그럼 선행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?

아닙니다. **한 학기 정도 앞서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.** 학교에서 처음 배울 때 이미 한 번 본 것이면 여유가 생기고, 그 여유가 수업 태도를 바꿉니다.

문제는 **두 학년 이상** 앞서 나갈 때입니다. 그때부터는 이해가 아니라 **훔기**가 됩니다. 그리고 훔은 것은 학교 진도가 따라왔을 때 **「안다」**는 착각으로 남아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.

기준을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. **지금 하는 진도를 한 달 뒤에 다시 풀 수 있으면 계속하시고, 안 풀리면 속도를 줄이십시오.**

Q. 영재교육원을 다니면 특목고에 유리한가요?

아닙니다. 오히려 적어서는 안 됩니다. 자기소개서에 영재교육원 교육·수료 사실을 기재하면 **감점 또는 0점 처리** 대상입니다.

실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. 그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. 다만 **「스펙」**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. 전형에서 가점 요소가 아니고, 적으면 불이익이 있는 항목입니다.

고입은 **중1부터의 내신과 중3의 서류**로 봅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초등에서 앞서는 것은 **진도가 아니라 습관**입니다. 진도는 중등에서 따라잡히지만, 습관은 따라잡히지 않습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과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 전에는 목표 학교의 최신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